

3. 정전계 II

정전계 내의 도체

도체(Conductor)의 기본 성질

도체내에서는 $E = 0$ 이다.

도체 내부에 전하가 유입되면 도체 내부에 전계가 형성된다. 이로 인해 전하는 힘을 받게 되고 내부의 전계가 0이 될 때까지 스스로 재배치된다.(도체 표면에 도착)

도체내에서는 전하밀도는 0이다.

앞서 도체 내부에 전계는 0이므로 가우스 법칙에 의해 도체 내부의 전하밀도도 0이 된다.

알짜 전하는 표면에만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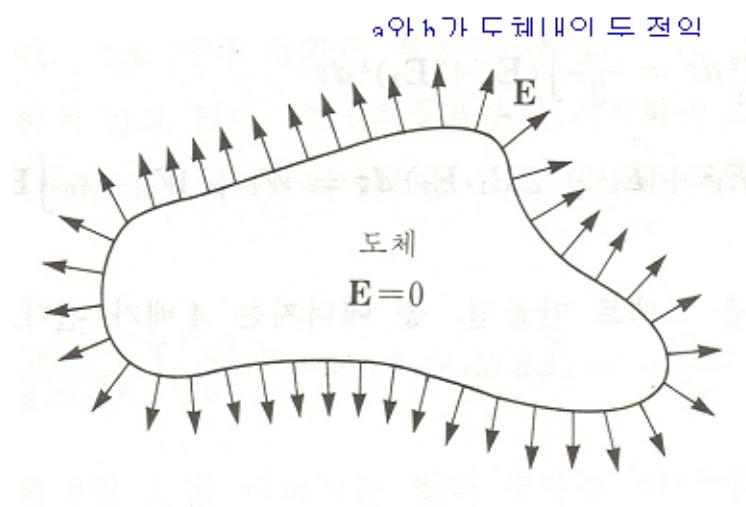
전하가 있을 수 있는 곳은 이곳 밖에 없다.

도체내에서는 V 가 항상 일정하다.

경우 $V(b) = V(a)$ 이다.

도체 바로 밖에 E 는 E_a 면에 E_b 면에 $\frac{b}{a}$ 를 갖다. E

E 의 접선 성분이 존재한다면 전하들은 평형 상태에 어질 때까지 표면 주위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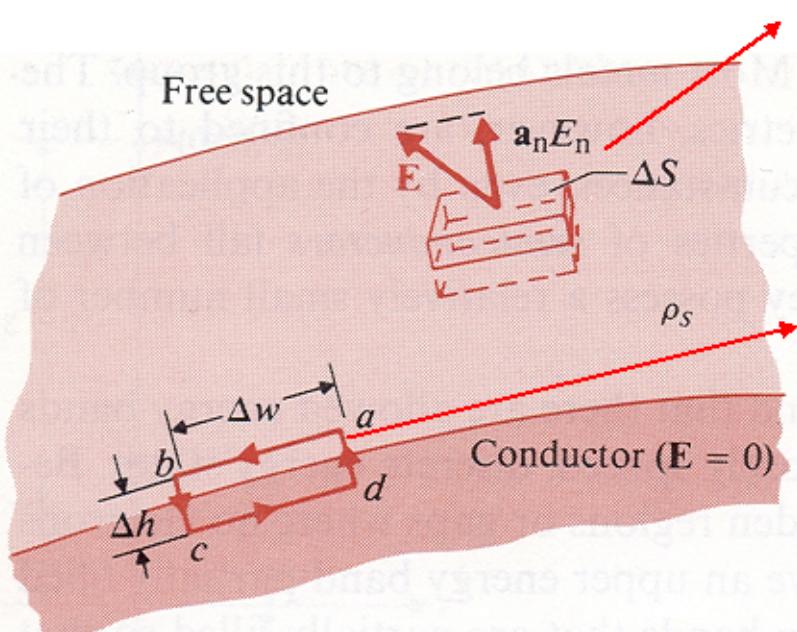


정전계 내의 도체

도체내에서.

$$\rho_v = 0, \vec{E} = 0$$

도체와 자유 공간의 경계면에서.



$$\oint_S \vec{E} \cdot d\vec{S} = E_n \Delta S = \frac{\rho_s \Delta S}{\epsilon_0} \Rightarrow E_n = \frac{\rho_s}{\epsilon_0}$$

: 도체와 자유공간의 경계에서 전계 E 의 법선 성분은 도체에서의 면 전하밀도를 자유공간의 유전율로 나눈 것과 같다..

$$\oint_{abcd} \vec{E} \cdot d\vec{l} = E_t \Delta w = 0 \Rightarrow E_t = 0 \quad (\Delta h \rightarrow 0)$$

: 도체 표면에서 전계 E 의 점선 성분은 정적 상태에서 0이다.

$$E_t = 0, \quad E_n = \frac{\rho_s}{\epsilon_0}$$

정전계에서의 유전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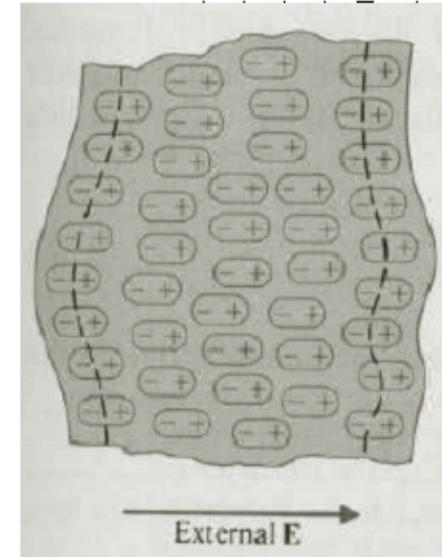
유전체(Dielectrics)

도체: 자유 전자가 존재(특정한 핵 주위에 갇혀 있지 않고 일 수 있음)

유전체: 전자들이 분자 구조 내에서 움직일 수 있으나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없다.

원자의 크기보다 작은 이동이지만 유전체는 분극
게 되고 전기 쌍극자(electric dipole)가
이러한 전기 쌍극자는 0이 아닌 전계 강도 E 를 가지므로
외부에서의 전계를 변화 시킨다.

생긴다.



분극 벡터(Polarization Vector)

유전체에 유도된 쌍극자의 거시적 효과를
분극벡터를 다음과 같이 정의

등가 분극 면 전하 밀도.

등가 분극 체적 전하 밀도

$$\rho_{ps} = \vec{P} \cdot \vec{a}_n \left(C/m^2 \right)$$

$$\rho_p = -\nabla \cdot \vec{P} \left(C/m^3 \right)$$

$$\Rightarrow \vec{P} = \lim_{\Delta v \rightarrow 0} \frac{\sum_{k=1}^{n \Delta v} \vec{p}_k}{\Delta v} \left(C/m^2 \right)$$

n : 단위체적 당 분자수

Δv : 미소체적

\vec{p}_k : 전기 쌍극자 모멘트

전속밀도와 유전 상수

전속밀도(electric flux density) 또는, 전기 변위(electric displacement)

앞서 언급했듯이 분극된 유전체는 등가 체적 전하 밀도 ρ_{pv} 를 갖기 때문에 전계 강도는 자유 공간에서와는 다르다.

$$\nabla \cdot \vec{E} = \frac{1}{\epsilon_0} (\rho_v + \rho_{pv}) = \frac{1}{\epsilon_0} (\rho_v - \nabla \cdot \vec{P}) \implies \nabla \cdot (\epsilon_0 \vec{E} + \vec{P}) = \rho_v \quad (1)$$

이제 전속밀도 \vec{D} , 전기 변위인 \vec{D} 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자.

식 (1)과 (2)를 결합하게 되면 $\boxed{\vec{D} = \epsilon_0 \vec{E} + \vec{P}} \quad (C/m^2) \quad (2)$

$\boxed{\nabla \cdot \vec{D} = \rho \quad (C/m^3)}$ $\boxed{\oint \vec{D} \cdot d\vec{s} = Q \quad (C)}$

임의의 폐표면을 통과하는 외부로의 총 전속(total outward electric flux)은 폐표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총 자유 전하와 같다.

일반화된 가우스 법칙

전기 감수율(electric susceptibility)

매질의 유전체 성질이 선형(linear)이고 등방성(isotropic)이며 균질(homogeneous)일 때, 분극은 전계 강도에 비례하고 비례 상수는 전계의 방향과 무관

$$\vec{P} = \epsilon_0 \chi_e \vec{E} \quad \text{여기서, } \chi_e \text{는 전기 감수율}$$

유전 상수(dielectric constant)

: 매질의 비유전율(relative permittivity) χ_e 는 유전상수(ϵ_r)는 1.00059

: 절대 유전율 (absolute permittivity), 또는 간단히 유전율
 ϵ_r

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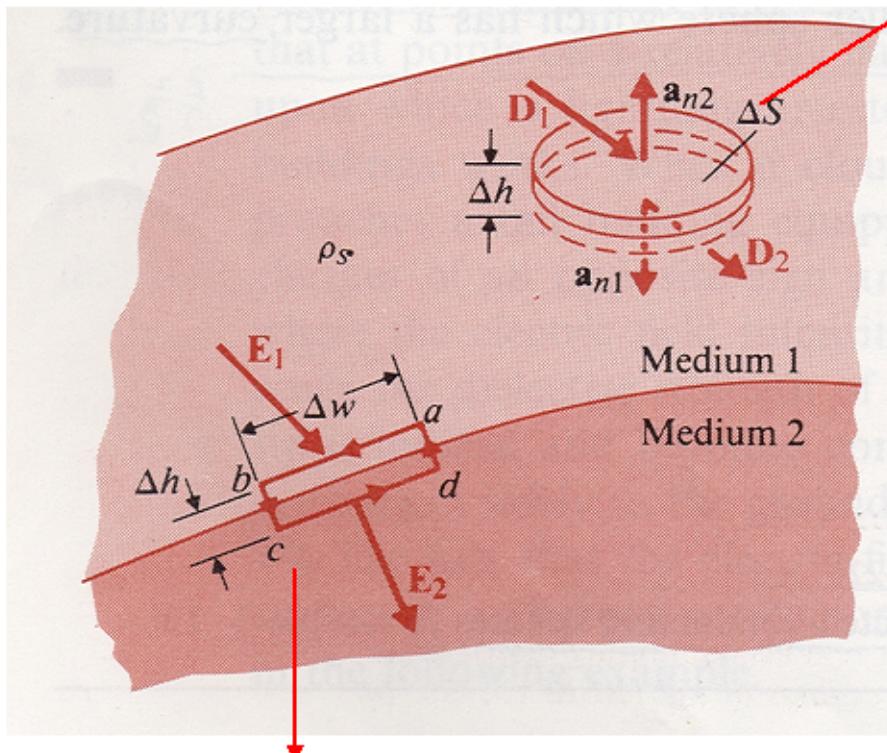
$$\begin{bmatrix} D_x \\ D_y \\ D_z \end{bmatrix} = \begin{bmatrix} \epsilon_{11} & \epsilon_{12} & \epsilon_{13} \\ \epsilon_{21} & \epsilon_{22} & \epsilon_{23} \\ \epsilon_{31} & \epsilon_{32} & \epsilon_{33} \end{bmatrix} \begin{bmatrix} E_x \\ E_y \\ E_z \end{bmatrix}$$

이방성 매질(anisotropic medium)

$$\begin{bmatrix} D_x \\ D_y \\ D_z \end{bmatrix} = \begin{bmatrix} \epsilon_1 & 0 & 0 \\ 0 & \epsilon_2 & 0 \\ 0 & 0 & \epsilon_3 \end{bmatrix} \begin{bmatrix} E_x \\ E_y \\ E_z \end{bmatrix}$$

단순매질(simple medium) : 선형, 균질, 등방성

정전계의 경계 조건



v D의 법선 성분에 대한 경계 조건

v → 작은 경로 abcda를 그려 선적분을 수행. Δh 를 0으로 접근시켜 E의 선적분에 대한 영향을 무시한다.

v D의 법선 성분에 대한 경계 조건

→ 매질 1에 윗면을, 매질 위에 밑면을 갖는 작은 상자(면적은 ΔS)에는 Δh 를 그리고 가우스 법칙을 적용.

$$\int_S \vec{D} \cdot d\vec{s} = (\vec{D}_1 \cdot \vec{a}_{n2} + \vec{D}_2 \cdot \vec{a}_{n1}) \Delta S \\ = \vec{a}_{n2} \cdot (\vec{D}_1 - \vec{D}_2) \Delta S = \rho_s \Delta S$$

$$\vec{a}_{n2} \cdot (\vec{D}_1 - \vec{D}_2) = \rho_s \quad \text{or,}$$

$$D_{1n} - D_{2n} = \rho_s \quad (C/m^2)$$

$$\int_{abcd} \vec{E} \cdot d\vec{l} = \vec{E}_1 \cdot \Delta \vec{w} + \vec{E}_2 \cdot (-\Delta \vec{w}) \\ = E_{1t} \cdot \Delta w - E_{2t} \cdot \Delta w = 0$$

$$E_{1t} = E_{2t} \quad (V/m)$$

정전용량과 커패시터

정전용량(capacitance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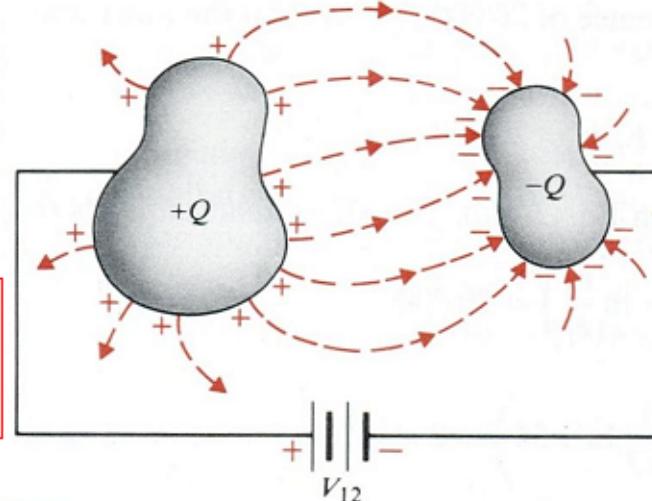
$$Q = CV$$

Capacitance of the isolated conducting body

커패시터 또는 콘덴서

→ 자유공간 또는 유전체로 분리된 두도체

$$C = \frac{Q}{V_{12}} \quad (\text{F})$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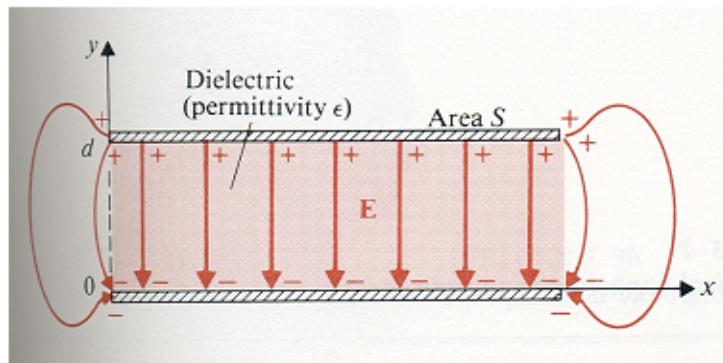


정전용량 계산 예 (평행판 커패시터)

상하 도체판에 각각 +Q, -Q가 대전
되어 있다면 면 전하밀도는

$$\Rightarrow \rho_s = \frac{Q}{S}$$

따라서 전계 강도 E는 $\Rightarrow \vec{E} = -\hat{y} \frac{\rho_s}{\epsilon} = -\hat{y} \frac{Q}{\epsilon S}$



$$V_{12} = - \int_{y=0}^{y=d} \vec{E} \cdot d\vec{l} = - \int_0^d \left(-\frac{Q}{\epsilon S} \right) dy = \frac{Qd}{\epsilon S}$$

$$\rightarrow C = \frac{Q}{V_{12}} = \frac{Q}{Qd / \epsilon S} = \epsilon \frac{S}{d}$$

Poisson과 Laplace 방정식

전하분포에 의한 전계의 해석은 Coulomb의 법칙이나 Gauss의 법칙 및 전위개념을 도입하여 풀이하였으나, 실제에서는 매우 복잡한 전하 분포인 경우가 많으므로 미분방정식에서 도출한 전위 함수로부터 전계를 구하는 방법 이용

Poisson 방정식

$$\nabla \cdot \vec{D} = \rho_v,$$

$$\nabla \times \vec{E} = 0,$$

$$\vec{E} = -\nabla V$$

$$\vec{D} = \epsilon \vec{E}$$
 (선형, 등방성 매질)

$$\nabla \cdot \epsilon \vec{E} = \rho_v \Rightarrow \nabla \cdot (\epsilon \nabla V) = -\rho_v$$

단순 매질(simple medium)에서 ϵ 은 ∇ 연산자 바깥으로 나올 수 있다.

$$\nabla^2 V = -\frac{\rho_v}{\epsilon} \quad (\text{V/m}^2)$$

Laplacian operator

$$\nabla^2 V = \frac{\partial^2 V}{\partial x^2} + \frac{\partial^2 V}{\partial y^2} + \frac{\partial^2 V}{\partial z^2} = -\frac{\rho_v}{\epsilon}$$

Laplace 방정식(자유 전하가 없는 단순 매질에서)

$$\nabla^2 V = \frac{\partial^2 V}{\partial x^2} + \frac{\partial^2 V}{\partial y^2} + \frac{\partial^2 V}{\partial z^2} = 0$$